

나주읍성 4대문 복원, 공연으로 맞이하다



오는 23일 나주읍성 복원 완료 기념 공연이 열리는 나주읍성 북망문 전경.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 제공》

나주읍성 4대문 복원 완료를 기념하는 시리즈 공연 '나주 4대읍성 프로젝트 문명의 부활'이 막을 올린다.

지난해 12월 나주읍성 4대문 복원사업의 마지막 성문 북망문(北望門) 복원이 완료됐다. 고려시대 초기 4만 3799㎡에 달하는 공간에 돌을 쌓아 지어 올린 나주읍성(사적 제337호)은 우리나라 읍성 가운데 규모·역사가 가장 크고 오래된 읍성으로, 짙은 왜구의 침입에도 읍성만은 피해가 없었던 기록이 있을 만큼 조상들의 든든한 삶의 터전이었다.

1910~20년 사이 일제가 4대문과 성벽을 훼손한 뒤 식민통치 건물지, 도로망 등으로 이용해 4대문은 복원에 기초석만 남아있었다. 나주시는 1993년 남교문(南驕門) 복원을 시작으로 나주읍성 4대문 복원사업을 진행해 2005년 동점문(東漸門), 2011년 영금문(映錦門 또는 서성문)에 이어 지난해 북망문까지 사업 추진 25년만에 4대문 복원을 완료했다.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나주읍성 4대문 복원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나주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기획된 문화 공연 시리즈다. 5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첫 공연 '북망문'을 시작으로 매해 8월 중 동점문, 영금문, 남교문

'4대 읍성 문명의 부활' 기념 무대

무지크바움, 매해 8월 5년간 개최

23일 '북망문' 공연, 미디어파사드도

순서로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3년으로 예정된 마지막 공연은 나주읍성 중심에 있는 금성관에서 펼쳐진다.

첫번째 공연 '북망문'은 오는 23일 오후 7시 나주시 산정동 북망문앞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는 나주고등학교 밴드 '데스파시드'가 무한계도의 '그대에게' 등을 공연하며 막을 올린다. 이어 빛가람중학교 '빛가람 칸타빌레 오케스트라'가 브람스의 '대학축전서곡', 이지수의 '아리랑 랩소디'를 연주하고, '무지크바움 유스오케스트라'가 요한 슈트라우스의 '전통과 반개 폴카'와 '박쥐 서곡',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등을 무대에 올린다.

2부에서는 김종·서춘기·전수 시인이 북망문에 대해 쓴



이인연 작가

판타지아), 아반의 '베니스의 사육제' 테마에 의한 변주곡' 등이다.

대미는 음악과 미디어아트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장식한다. 노기수 낭송가가 나해철 시인의 헌시 '북망문을 위하여 (북망문 복원을 기뻐하며)'를 낭송하고, 무지크바움 미디어아트 상임작가 이이남과 음악감독 김선철이 함께 작업한 미디어파사드를 상영한다. 관람료 무료. /유연재 기자 yjyjo@



무지크바움 유스오케스트라.

윤영훈 작가 첫 가사동화집

'두꺼비, 드디어 하늘을 날다'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회장과 전남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윤영훈 작가가 첫 가사동화집 '두꺼비, 드디어 하늘을 날다'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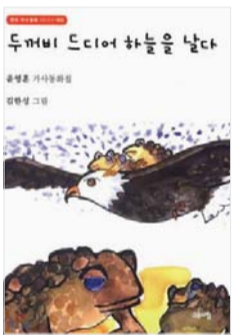
동시집 '풀밭에 소리 시냇물 소리'를 낸 지 15년 만에 발간한 이번 동화집에서작가는 자연이 파괴되는 현장에 있는 두꺼비, 비둘기의 아픔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애완동물인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의 재미있는 세계 그리고 소년과 소녀의 애뜻한 사랑을 운율의 언어로 담아냈다.

지금까지 향토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시 세계를 펼쳐온 것과 달리, 이번 작품집에서는 상상력을 가미한 동화를 특유의 정갈한 언어로 형상화했다. 이번 작품집에는 '두꺼비, 드디어 하늘을 날다', '점돌아, 정말 미안해', '비둘기의 꿈', '행복의 날개'가 수록돼 있다.

특히 이번 가사동화는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에서 선정한 동화로, 산문이 아닌 운문으로 기록돼 있어 어린이의 정서와 감성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작가는 "새로운 가사동화가 어린이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가사동화집을 출간했다"고 의미를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이동반 30~40대 여성, 광주시립미술관 가장 많이 찾아

관람객 대상 설문, 가족 체험형 전시 등 원해

광주시립미술관 주요 관람객은 30~40대 여성으로 전시 관람과 함께 자녀 교육과 체험을 위해 아이를 동반하고 미술관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 체험형 전시와 해외유명 명화전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식음료 매장에서 식사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 4월부터 40여일간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관람객 10명 중 8명(76.4%)이 여성 관객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29.7%), 40대(25.9%), 20대(14.4%), 50대(14.2%), 60대 이상(10.2%), 10대 이하(5.5%) 순이었다. 관람한 동반인의 경우 가족과 방음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술관 재방문 이유로는 전시관람(59.3%), 자녀의 교육 및 체험(40.3%), 교육 프로그램 이용(20.2%), 지인과의 만남(10.3%) 등의 순이었다.

미술관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미술 실기교육(36.3%), 인문학 강좌(30.3%), 예술사 강좌(31.2%), 전시연계 토크강좌(16.3%), 도슨트 양성교육

(13.4%), 소외계층 대상 미술교육(10.6%) 등이었으며 앞으로 관람하고 싶은 전시회는 45.9%가 가족 체험형 전시를 꼽았고 해외 유명 명화전(38.5%) 디자인전(건축, 가구, 공예·29.7%), 지역작가 전시(18.4%), 미디어아트(비디오 등14.2%)가 뒤를 이었다.

미술관 전시 관람의 전반적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약 90%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며 설문 진행 당시 진행됐던 전시 만족도는 '남도미술-뿌리전',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전', 어린이 미술관 체험 전시, 신소장품전 순으로 각 전시별 차이는 미세했다.

또 미술관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직원 친절도, 미술관 위치 만족도, 화장실 시설, 식음료 시설(카페), 휴게시설(휴게용 의자) 순이었으며 가장 만족도가 낮은 주차 시설(2.87)의 경우 주차 공간 부족과 위치 파악 어려움 등을 주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 미술관 발전 방안을 구상중인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번 관람객 설문조사 만족도를 분석해 '수요자 중심의 미술관' 혁신과 발전을 위한 방안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깨어나다'

21세기 정신 조각회, 28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개성 있는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조각가 그룹 '21세기 정신 조각회'는 지난 1990년 광주·전남 지역 조소과 출신 작가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해 화니미술관에서 창립전을 열었고 지난 2010년에는 서울과 광주에서 20주년 기념전 '남도 조각의 흐름'전을 열기도 했다.

'21세기 정신 조각회'의 스물 여섯번째 전시회가 오는 2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린다. 단체 초대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의 주제는 '깨어나다'로 정했다. 시대를 살아가며 만나는 다양한 이슈들을 가짜 정보와 왜곡된 진실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이다.

전시엔 강상규·김기현·나상세·위재환·이병선·이은애·임권준·조유나·최희원 작가가 참여해 테라코타, 나무, 브론즈 등 다양한 소재로 작업한 작품을 전시중이다. 김기현 작가는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도마, 채, 빨래방망이 등 다채로운 물건을 소재로 작업한 '가족' 시리즈를 선보이며 강상규 작가는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한민족의 자세를 이순신 장군의 12척 거북선으로 묘사한 테라코타 작품을 전시한다.

또 환경이 파괴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생명이 꿈틀대는 희망의 도시를 찾아 나선 이의 모습을 담은 위재환 작가의 '몽상가', 세월호 참사 후 진실을 찾아 행동하는 이들의 목소리와 자세를 작품에 담은 임권준 작가의 '중지동천(衆志動天)' 등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김기현 작 '가족III'

'풍경-시간, 공간 속으로'

이순행 첫 개인전, 21일~9월 1일 양림미술관

거칠고, 오래 묵은 느낌의 원시적 해바라기를 만난다.

이순행 작가 초대전이 21일부터 9월1일까지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풍경-시간, 공간 속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이 작가의 첫번째 개인전으로 모두 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짧은 시절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늦깎이로 다시 서양화를 전공한 이 작가는 10여년전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후 주변의 격려로 용기를 내 전시회를 마련했다.

작업 초창기 눈에 비치는 대상과 형태를 순간의 이끌림으로 풀어내는 추상 작업에 관심이 많았던 이 작가는 담양에 작업실을 얻은 후 그림에 몰두하다 '해바라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번 전시작 역시 다채롭게 풀어낸 해바라기가 주를



'해바라기'

이룬다. 이 작가가 그리는 해바라기는 화사하고 매끈한 모습 대신 거칠고 투박한 기운이 가득하다. 붓대와 실 등을 한올한올 풀어 그 위에 색을 얹고 한지와 돌가루와 독특한 질감의 종이 등을 사용해 밀착업을 진행한 후 아크릴과 유화물감을 함께 써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낸다.

해바라기 하면 떠오르는 노란빛 대신 푸른빛으로 무장한 해바라기는 신비로움과 동화적인 색다른 느낌을 전하며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늙은 철문과 세상으로 난 작은 창, 꽃과 나무로 뒤덮인 문, 소박한 담쟁이 덩굴 등 시간이 정지된 듯한 풍경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건넨다.

이 작가는 광주시 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등에서 특선했으며 한·중 국제미술 교류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전시 초대 일시 23일 오후 6시. 10월21일부터 전남도청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이어진다. /김미은 기자 mekim@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